

아이들 위해 학부모·지역사회 뭉쳤다

광주건국초, 학교 축제 지역사회 연계 실시

광주 건국초등학교(교장 정영신)가 4일 오전 학부모와 지역사회기관이 연계해 '꿈을 키우고 끼를 펼치는' 건국어울림축제를 전교생 491명을 대상으로 교실과 강당에서 실시했다.

건국어울림축제는 학생들이 다양한 창의·직업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 등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공동체 학교문화 형성에 의해 열렸다. 학생 공연과 전시 중심의 기존의 축제를 지역사회연계와 학부모 재능기부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해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학부모 재능기부로 '손으로 만드는 세상', '이야기로 배우는 독립운동', '다양한 문화가 꽃피는 세

계', '나도 할 수 있어요, 심폐소생술' 등 총 36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80여 명의 외부기관인사,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해 학교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여 주었다. 학생들은 평소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재능을 진로와 관련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축제 후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 교육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결같이 말했다.

이날 축제에 참여한 6학년 한 학생은 "진로와 관련된 동영상 보면서 내가 몰랐던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축제에서 내가 미리 선택한 체험활동이 실제를 통해 나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5학년 한 담임 교사는 "학생들이 축제에 적극적으로 즐거운 태도로 활



동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특히 재능기부 받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진로를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학생

들이 다양한 직업세계를 체험하고, 학생들의 생애 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며 "이를 통해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공동체 학교문화가 꽃피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민철 기자 jmc@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들 광주청소년독립페스티벌 개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주희청)이 주최하고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한 '2016 광주청소년독립페스티벌(이하 독립페스타)'이 11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에 광안리에서 개최됐다.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의 아름다운 자립'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독립페스타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을 기념·계승해 2016년 오늘을 사는 청소년들의 자치·자립·사회참여활동의 현주소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사회문제 인식·조사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사례를 공유하는 '청소년사회참여대회',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문화예술적으로 구현한 '1929 학생들의 기획 마당', 청소년들의 사회제 문제의식을 담은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내용을 진행했다.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정당별 합동 연설과 유세도 이뤄졌다. 현장에서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사전선거'도 진행됐다.

창취교 교육감은 "최근 시국을 보면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민들의 사회적 참여와 실천이 절실하다"며 "이번 독립페스타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마음에서 우리사회의 문제해결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철 기자 jmc@

한 명 한 명 목소리가 하모니로

광주산정중, 2016년 청소년 정보윤리 창작음악제 우수상

2016년 창단된 산정중학교(교장 이상철) 합창단이 11월3일(목) KT 체인버튼에서 열린 '2016년 청소년 정보윤리창작음악제' 본선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10월 6-7일 진행된 전국 예선을 통과한 14개 중·고등학교가 이번 음악제 본선에 참여했다. 광주·전남·전북에서 유일하게 산정중이 본선에 올랐다.

올해 창단된 산정중학교는 대회 경험이 전무했지만 지도교사와 헌신과 동료 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처음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산정중 합창단이 본선에서 부른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SNS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언어폭력과 저작권에 대해 학생들과 지도교사가 함께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낸 자작·연습곡이다. 학생들의 개성이 묻어나는 리드미컬한 랩이 가미된 현장에서 청중들에게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특히 네티켓 UCC를 기획하고 개사하고 홍보하는 전 과정은 학생들의

순수한 아이디어로 이루어졌으며 합창단원들은 주말도 반납한 채 연습에 매진했다. 또 지도교사와 합창단원들은 점심시간 재학생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진행하고 각종 학교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교내외 행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날 지도교사 상을 받은 서정열 교사는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모아 개성있는 하모니로 때로는 학생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학생들과 웃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아이들과 함께 부르고 싶었다"며 "아이들이 무대경험이 없어 걱정을 했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학생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갖게 되어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조민철 기자 jmc@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 가득

광주양동초 양동예술꽃마루 축제, 연극 중심 통합예술 선보여

광주양동초등학교(교장 정성숙)가 11월4일 오후 이 학교 강당에서 학생 95명 학부모와 지역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극 중심' 양동예술꽃마루 축제를 열었다.

이날 양동예술꽃마루 축제는 첫인사와 나라 연주로 막을 열었다. 이어서 연극 '마당을 나온 암막', 새 친구, 라이언 킹, 1980년으로 시간 여행'이 무대에 올랐다. 또한 퍼포먼스 연극 '디어블로', 동아리연극인 뮤지컬 '애니', 플래시모브 형태의 '도레미송'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우루멜레 연주와 합창단, 기악합주 공연도 진행됐다. 교정에서 독서축제 양

동 STORY 결과물인 시화 작품과 전교생이 손수 만든 나만의 액자, 방과 후학교 활동 결과물인 종이접기, 공예 작품을 전시했다.

그 동안 광주양동초등학교는 '연극 중심의 통합예술을 통한 양동예술꽃마루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다. 매 주 월요일과 금요일을 예술꽃 씨앗학교의 날로 정하고 각 학년 교육연구과 우루멜레 동아리, 미술과 음악실기 수업의 교육예술 연계 수업을 실시했다. 또한 예술꽃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놀이극, 퍼포먼스 연극, 우루멜레, 디자인아트 부서를 운영했다.

여름방학 때는 예술꽃마루 연극캠프를 열어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면서 종합적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연수와 예술 동아리도 운영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예술꽃 씨앗학교'로 선정된 바 있는 광주양동초는 문화예술 교육환경 조성과 기초 역량을 강화해 통해 다양한 체험과 표현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과 감수성을 키워왔다.

조민철 기자 jmc@

해안도로 산책하며 소통의 시간 갖다

광주목련초,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체험과 건강걷기 행사 성료

광주 목련초등학교(교장 윤관석)가 10월 29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130여 명의 교육공동체가 참여한 가운데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및 건강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한빛원지력발전소 홍보관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과 발전 용량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방식전 체험에 참여했다. 또한 원지력 발전 시 발생하는 온배수를 재활용한 운영되는 아쿠아리움을 둘러본 뒤 원자로 내부를 모형으로 제작·작동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체험은 백수해안도로 길을 온가족이 함께 걷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가족 간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풍경을 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교육청이 지원하는 학부모 학교 참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학부모도 일원들이 계획에 참여해 사전조사도 진행했다. 또한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등 안전관리, 인원점검, 각종 안내까지 도맡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3번째 행사에 참여한 6학년 한 학생은 "우리 학교에 이렇게 가족들과 선생님이 함께 마음껏 즐기며 체험하는 행사가 있어 너무 좋았다"고 밝혔다. 행사를 추진한 학부모 회장은 "학교와 교육청이 지원하고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좋겠다"며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킨 뜻깊은 행사였다"고 덧붙였다.

조민철 기자 jmc@

광주큰별초,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광주 큰별초등학교(교장 이경화)는 11월 1일 교로 앞 도로 인근에서 '등굣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이 학교 학생회로 구성된 어깨동무 동아리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교직원, 학부모, 평신경찰서 경찰관 등 40여 명이 함께 진행했다.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다양한 문구의 교통안전 피켓을 활용한 홍보활동이 특히 눈에 띄었다.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는 "오늘 캠페인 활동 중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차량 규정 속도, 신호, 정지선 등을 평소보다 잘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조민철 기자 jmc@

교육기관 모바일 홈페이지 전문회사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정성과 꼼꼼함을 담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분야
학교/기업/홈페이지 제작
교재/교구 기록매체출판

(주)글로벌코리아
담당자: 임명철 TEL : 062-363-4300 MOBILE : 010-9549-0100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효곡로 277 광주대학교 인성관 516호
홈페이지 : http://www.gkhome.co.kr

GLOBAL KOREA CO., LTD.
GLOBAL KOREA DESIGN MARK GROUP

BOOKCUBE®
전자책 도서서관

전자책 목록집이 필요 학인
학교, 도서관, 기관은
핸드폰 010-9682-3515번에
문자로 기관명, E-mail 주소를
보내 주시면 E-mail 주소로
전자책 목록집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주)북큐브네트웍스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97-5 삼성IT빌딩 514호

COPYRIGHT © BOOKCUBENETWORKS CO., LTD. ALL RIGHTS RESEVED

www.bookcube.com

증강현실(AR)을 통한 과학과 영어의 만남!!
AR POP-UP BOOKS

English
Vivid Science (EVS)

이제 학교에서 영어와 과학을 배우고,
과학으로 영어를 공부하자!

Butterfly
How many kinds...

동용언어
과학현상퀴즈

EVS는 현상기반의 성찰형 콘텐츠들이 담겨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초등학교 학생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는 등 사용자들의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면, 일일 문의처를 남겨주세요.

S2B 출판번호 201310261636303
(주)유티코리아 | TEL.070-4930-4010 / www.e-utl.com

UTL Korea
(주)유티코리아